



가을의 말

서생중 2-2 김가인

나뭇잎 하나가 땅으로 내려앉는 소리에도
말이 숨어 있다.

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은
눈에 보이지 않아도
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.

우리말처럼 조용히,
그러나 단단하게
시간을 껴안고 있는 빗줄과 소리.

가을하늘을 올려다보면
넓은 마음이 스며든다.
말이 닿지 않아도
마음 깊이 스며드는 그 울림.

한숨과 웃음, 그리고 기억이
낙엽 사이로 스며든다.
조용하지만 오래도록,
우리 안에 남는 가을의 말.

